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 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 오고 있으니 돌려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하며 거절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지 합니디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강하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마태 15: 21~28)

오늘 읽은 성서의 말씀을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드로시돈 지방에서 전도하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가나안 여인을 떠밀치고 예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예수님 자신도 아주 냉담하게 이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못이겨 결국 예수는

그녀의 딸의 정신병을 고쳐 준다는 아주 절박한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서 예수께서는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한번 에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생각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신앙생활, 곧 큰 믿음을 가지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란 우리 생활의 근거와 뒷받침이 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생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면서 가끔 좌절당하면 우리는 큰 믿음이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특정한 인물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나는 진정한 신앙인인가?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생활의 타성에서 하게 되는 관습적인 교회 출석인가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서를 읽어 보면 예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말씀하신 일이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베나움에서 온 한 백부장을 향하여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베나움의 백부장이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왜 위대하며 훌륭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추리해서 말할 수가 있으나 여기서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의 여인이 예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민 간단한 행위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상봉에서 우리는 먼저 큰 소리로 호소하는 일,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제자들의 토론, 거절, 그리고 애원에서 최종적인 이해에 도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절하게 요구하는 여인의 목소리

가 예수님의 침묵에 부딪쳐 결국은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손상한다는 생각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한 한 여인의 간구로 예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주님과와의 만남의 서스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과 거절 앞에 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회의·좌절·기대가 엇갈린 심정에 가득차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왕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는 침묵을 했습니다. 이때의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좌절에 차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불안을 느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여인은 넘지 못할 경계선을 넘어 왔습니다. 그녀는 가나안을 떠나 드로 시돈에 왔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의 보잘 것 없는 한 여인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집념 하나로 국경선을 넘어 와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꼭 예수를 만나 내 딸의 병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 딸의 병을 고쳐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모험이었습니다. 만일 끝까지 거절당하면 이 여인은 어떤 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웃의 조롱과 냉소를 받아 가면서 헛수고 했다는 비난을 들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불안 뒤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부딪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오랜 침묵 속에서 제자들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인간이었기에 이 여인의 호소에 대하여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요란스런 토론, 그것은 결코 예수보다 제자들이 더 인도주의자들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인간이 말하는 인도주의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읍니다. 다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

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인간의 토론보다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영혼의 만남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죽어가고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실까? 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는 나의 유업을 이룰 장자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이다지도 무응답이실까? 자유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일신의 안정을 버리고서 용감하게 행동한 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냉담하실까?

한국 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늘 수난을 겪어 왔고 그 수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의 소망을 잃지 않았으며 언젠가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냉담하시고 아무런 응답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과 긴장의 시간을 이리도 오래 계속하실까?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해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인간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힘있거나 힘이 없거나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서 <주여 도와주소서>하고 애원하는 자세를 버리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버릴 수 없는 운명적인 진리입니다. 이러한 애원과 간구를 나타내는 성서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러한 겸허한 애원, 기원과 대조시킨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먼 옛날 유대나라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로만 생각하고 우리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을 바리새인 정신은 우리 자신들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유대인처럼 율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정신, 바리새 정신은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바리새 정신이란 무엇인가? 바리새 정신과 이 가나안 여인의 태도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 정신의 근본적인 특징은 <이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남이 내게 빚진 것도 없다는 정신, 주어진 율리와 질서만 지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정신, 현상유지 정신입니다. 금전적으로 남과의 부채관계가 없을 뿐더러 정신적인 부채관계도 없는, 하물며 사랑의 부채관계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생활, 이것이 현대 바리새 정신의 특색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은 이세상의 악한에게 침해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2천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제군주·독재자·공산주의자들의 힘의 정치에서 많은 수난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독재자들은 결코 하늘에서 갑자기 이 땅 위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독재자는 그 나라 국민이 빚어 만든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권력자의 편에 서면 더욱 부패하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국민이 만들어 냈고, 이태리의 뭇솔리니는 이태리 국민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국민이 그 나라의 독재군주를 만들어 내고, 그들 자신이 만든 독재자들의 억압에 고난을 받는가? 그것은 다만 그 국민이 바리새 정신에 사로 잡혀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에 대해 부채를 지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역시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가 바리새적인 교조주의에 사로 잡혀서 안이한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있던 탓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남을 원망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힘의 억압에 시달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바리새적인 신앙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할 일이 있다면 우리들 자신의 바리새적인 신앙태도일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 길만 찾아나가면 된다, 남을 희생시켜도 좋고 남보다 재빨리 내 갈 길만 가면 된다는 태도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원인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하거나 생존경쟁의 패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니 평화니 하고 떠드는 것은 눈치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잠꼬대라고 냉소하고 지내는 바리새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자승자박하는 지경에 빠져 꼼짝 못하고 말 것입니다. 힘의 폭정 속에서 수도 살만 찌고 정신박약아가 된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GN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국민생활을 돌이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GNP 100불 때와 300불 때의 자유는 더 증가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끝으로 이 가나안 여인은 정신병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회가 귀신들려 있다고, 우리의 올바른 일은 빠져 버렸다고 봅니다. 한국의 일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눈앞의 실리 때문에 우리의 일은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일을 찬양하는 외국의 손님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개인생활에서 금력과 권력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할 수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급급한 정신박약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고분을 파서 우리 선조들의 유물을 발견했다는 신문 보도와 함께 이러한 희귀한 문화재를 몇 푼의 금전에 팔아먹는 얼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저명한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정치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것도 모르는 이름없고 비천한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바리새적인 생활을 참회합니다. 우리의 딸,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가 병들어 있는 것을 고쳐 달라고 애원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이 크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결국 위대한 신앙이란 인간이 자기의 의사로나 판단으로써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아가 <주여 도와 주소서>하고 간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인가?

<귀신들린 내 딸을 고쳐 주소서.>

이것만이 우리들 믿는 자의 본연의 자세요, 또 너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1974. 3. 30. 경동교회에서)